

년의 역사와 만나다.

청이 설치되어, 행정·문화의 중심지로 번성해
신 이후에 이즈하라로 명칭이 바뀌었다.

막부로부터 10만석의 재력을 가진 번으로
높은 지위였다.

쓰시마번의 안내와 호위를 받으며, 후추를 거쳐
다·무역 창구로 번영했고, 부산에는 쓰시마번
설치되는 등, 독자적인 외교·무역 기능을

E-4 『관광정보관 후레이아도코로 쓰시마』

쓰시마관광의 현관

2015년5월16일에 오픈한 쓰시마관광의
거점으로, 쓰시마번 가신이었던 후루카와
가의 나가야문을 재현한 시설이다.

관광안내소 이외에 쓰시마 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특산품의 방”, 쓰시마의 신선한
해산물이나 향토요리를 맛볼 수 있는
“후레이아식당 이코이”, 자연·역사·문
화 등을 소개하는 “관광의 방”이 있다.

자전거 대여와 서적도 취급하며, 물품보
관함, 공중화장실, 버스 정류소도 설치되어
있다.



→시설정보①

『무가저택돌담』

에도시대의 거리를 추억하다

이즈하라에는 쓰시마번 조카마치 당시의 저택 돌담
이 남아 있다. 이 돌담은 에도시대 초기부터 만들어졌
고, 1811년 조선통신
사의 일본 방문에 맞추
어 더욱 아름답게 정비
되었다.

지금도 많이 남아 있
는 돌담을 보며 조카
마치 이즈하라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



E-3 『덕혜옹주 결혼봉축기념비』

소 다케유키 백작과 조선 황녀의 사랑과 진실

조선 26대 국왕 고종의 딸인
덕혜옹주와 쓰시마번주 소 다케
유키(宗 武志)의 결혼을 기념하
여, 1931년 쓰시마에 거주했던
조선인들이 세운 기념비다.

전쟁 후, 덕혜옹주의 정신분열
증세가 악화되자 두 사람은 이혼
하였고, 기념비는 철거되었다가
2001년에 복원되었다.



E-3 『가네이시성 정원』

국가지정명승(2007년2월6일 지정)
일본유산구성문화재(2015년4월24일 지정)

영주의 연못

소(宗)가의 거처지였던 가네이시성의 정원으로, 17
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있
었는데 발굴조사 결과, 근세
정원으로서의 드문 디자인과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정비 후에 국가명승
지로 지정되어 일반에 공개
되고 있다.



→시설정보②

E-3 『반쇼인』 (쓰시마번주 소가 묘소)

국가지정사적(1985년2월18일 지정)
일본유산구성문화재(2015년4월24일 지정)

역대 번주가 잠들다

쓰시마번주 소가의 보리사로, 1615년에 초대 번주 소
요시토시(소가 19대)를 기리기 위해 창건되었다.

본당에는 조선국왕이 선물한
삼구족(향로, 꽃병, 촛대)과
도쿠가와 역대 장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본당 옆에 있는
하쿠간기라는 계단을 올라가
면 나가사키현 지정 천연기념
물인 큰 삼목과 역대 번주의
장대한 묘소가 모습을 드러낸
다.



→시설정보③

F-4 『이즈하라 하치만구 신사』

조카마치의 수호신

이즈하라 중심부에 위치하며, 옛부터 쓰시마번주를
비롯한 주민들의 숭배를 받아온 오래된 신사다. 진구황후
가 시미즈야마에서 제사를 지내고 타국의 침입으로부터
땅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전해진다.

쓰시마번 초대번주·
소 요시토시(宗義智)의
아내인 마리아(고니치 유
키나가의 딸)는 가톨릭신
자였으나, 하치만구 신사
안에 있는 이마미야 와카
미야 신사에 모셔져 있다.



F-4 『나카라이 토스이 기념관』

소설가 히구치 이치요의 스승

나카라이 토스이는 메이지시대의 신문기자이자 소설가다.
쓰시마출신인 그는 일본 5천엔 지폐의 주인공인 히구치
이치요의 스승이자 연모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 러일전쟁
당시, 중군기자로서 전쟁터의
상황을 전하는 등 활약했다.

나카라이 토스이가 태어
난 이즈하라마치 나카마라
지구는 지금도 조카마치의
정취가 남아 있으며, 생가
가 있던 자리는 주민 교류시
설 “나카라이 토스이 기념관”
으로 정비되어 있다.



→시설정보④

G-3 『나가야문』 (나가사키현 쓰시마진흥국)

쓰시마시유형문화재· 건조물(1992년10월1일 지정)

쓰시마번의 건물 양식을 오늘날에 전하다

1678년에 사지키바라성이 세워졌을 때, 서쪽 해안 선착
장에서 사지키바라성 정문까지 “바바지 길”이라는 큰
도로가 정비되었다.

바바지 길의 양쪽
에는 소가 일족 및
상급무사들의 저택이
있었고, 나가야문이
있는 쪽은 쓰시마번
가신 우지예가의 저택
이었다.



H-2 『닛신관문』

나가사키현유형문화재· 건조물(1970년10월6일 지정)

에도막부 말기 격동의 무대

쓰시마번주 소(宗)가 별장의 문으로, 에도막부 말기에는
쓰시마번 학교 닛신관의 문으로 사용되었다. 에도말기
다이묘의 격식을 갖춘 무가저택문으로는 나가사키현에서
유일하다.

닛신관은 에도막부 말기
쓰시마번 근왕당의 거점
이었으나 번의 내분(가쓰이
소동)으로 많은 인재를
잃은 안타까운 역사를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I-2 『사지키바라성』

조카마치 중심의 성

제3대 번주 소 요시자네(소가21대)는 1679
년에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 사지키바라 언덕에
신관을 세웠다.

성을 지키는 망루는 없으며, 번의 통치가 끝날
때까지 역대번주가 사는 성이 되었다. 1869년에
이즈하라 성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지금은 육상자
위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F-5 『이사리비공원』

절경 포인트

쓰시마 동해안을 전망할 수 있는 공원으로, 아침에는
일출, 밤에는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인 이사리비를 볼 수
있다. 공원에서는

잔디발광장과 놀
이기구 외, 족욕
(4~11월)을 즐길
수 있어, 관광객과
시민들의 휴식 장
소로 이용되고 있
다.



E-3 『시미즈야마성터』

국가지정기념물· 사적(1984년12월6일 지정)
일본유산구성문화재(2015년 4월 24일 지정)

세월과 함께 사라져간 병사들

임진왜란에 즈음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1591년에 세워졌다고 알려진 산성이다. 이치노마루에서
산노마루까지 지형을 따라
약500m에 이르는 유적이
남아 있다.

조카마치 이즈하라마을의
전경과 규슈쪽 바다를 조
망할 수 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과 그 덧
없음을 느낄 수 있다.



G-4 『아메노모리 호슈의 묘』

쓰시마시유형문화재(2005년5월1일 지정)

뛰어난 외교관

아메노모리 호슈(1668~1755)는
시가현에서 태어났으며, 1689년부터
쓰시마번에서 조선외교를 담당
했다.

‘성신교린을 주창한 유학자’ 인
아메노모리 호슈의 국제감각과 사
상은 오늘날의 외교관계에도 충분
히 통용되는 것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F-5 『고쿠분지의 산문』

쓰시마시유형문화재· 건조물(1992년10월1일 지정)

조선통신사 객관터

1807년에 건립된 쓰시마 유일의 사주문(四柱門)이다.
메이지시대, 고쿠분지는 화재로 소실됐으나 산문만은

화재를 면하여 에도시대
후기의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진 뛰어난 구조
물로, 쓰시마를 대표하는
문화재의 하나다.

